

삼공본풀이

현승환

목차

- I. 머리말
- II. 유형
- III. 형성배경
- IV. 구조와 의미
- V. 신앙적 의미
- VI. 부친의 안맹과 개안
- VII. 결론

I. 머리말

제주의 삼공신본풀이는 현재에도 심방이 굿에서 구연하는 무속신화이다. 심방은 큰굿에서 12본풀이를 구연하는데, 유독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는 ‘공(公)’이라는 말을 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심방이 구연하는 본풀이 속에서는 공(公)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宮)으로 구연하기도 하여¹⁾ 원래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신명으로 쓰는 초공, 이공, 삼공은 그 자체로 주인공을 의미하고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삼공신은 그 기능에 따라 전상신이라 불린다. 전상은 인간의 운명 또는 팔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쓰던 말이다. 이수자는²⁾ 전상신은 「인간의 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간 삶의 양상을 좌우하며, 또는 그와 같은 운명적 상황이 마련되도록 어떤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신」이라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 신이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져 왔고,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 본토, 나아가서 동아시아에 널리 운명 관장신적 신앙의식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승환³⁾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

1) 현용준(1980)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63쪽) 본풀이에 대해 주를 달면서 초공은 초공(初公) 또는 초궁(初宮)으로 풀고 있고, 이공신본풀이의 이공 역시 이공(二公)과 二宮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방 역시 본풀이를 구연하면서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이궁(二宮) 서천도산국, 집진국도 상시당(上試堂) 원진국도 상시당, 원강아미, 원강도형, 황세곤간 도세곤간 꽃감관 꽃생인(花監官花聖人) 살려옵서. 이공(二宮)은 꽃뿔리가 뉘옵네다. 탁상우전 살려옵서. 안이공(內二宮)은 몸받은 신공시(恭神床)로 살려옵서. 바외공(外二宮)은 탁상전(卓床前)으로 살려옵서.

2)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8-19.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에서 개인의 운명 뿐 만 아니라 가정의 운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운명관을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삼공본풀이의 줄거리에 따르면, 가난한 부모가 셋째 딸을 낳고 난 후, 세 딸에게 ‘누구 복에 사는가’ 라고 묻는다. 셋째 딸은 아버지의 덕분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복에 산다’ 고 대답하였다가 아버지로부터 축출 당한다. 쫓겨난 딸은 가난뱅이 마통이를⁴⁾ 만나 혼인을 하여 남편의 일터에서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 여기에는 여성이 부친에 의해 쫓겨나 결혼을 한 번 하는 설화인 초혼형(初婚型)과 여성이 혼인을 하였다가 남편에 의해 쫓겨나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설화인 재혼형(再婚型)⁵⁾으로 나뉜다. 어느 것이나 여성을 쫓아내었던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 이 계통의 설화는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 ‘내 복에 산다형 민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 복에 산다’ 계 설화로 포괄하고 있다.⁶⁾ 이 계통의 설화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전승되고 있고, 그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게다가 구조면에서 한국의 대표격인 제주의 삼공본풀이에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안맹과 개안 모티브가 삽입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근원적 설화요소라 볼 수 없어 한국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잘 알려진 안맹과 개안 모티브는 삼공본풀이에서 신성성을 보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런 설화의 복합은 오랜 전승 속에서 문화의 전승과 변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국에서는 ‘숫장이’ 라는 민간 설화로 전승되고 있고, 전설로는 무왕 전설, 온달 전설, 신화로는 제주에서만 삼공본풀이로 전승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탄소장자담(炭燒長者譚), 중국에서는 정해진 명칭은 없으나 대부분이 조신고사(寵神故事)로 전승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삼공본풀이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설화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삼공본풀이에

3) 현승환(1993),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민간설화에서는 숫을 구워 살아가는 가난한 인물이다. 이처럼 숫을 구워 살아가는 천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로는 ‘숫장이’가 있다.

5) 伊藤清司(1991), 『昔話 傳説の系譜』, 第一書房.

6) 현승환(1993),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에서 종합하여 논의하였고, 그 외로 여러 주장들이 있다.

崔雲植(1973), 「쫓겨난 女人發福 說話考」,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李承均(1981), 「福 많은 女子系 民譚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석배(1982),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집, 문학과 언어학회.

金大珮(1987), 「女人 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成者說(1981), 「韓日 民譚의 比較 研究-溫達 武王系說話와 炭燒小五朗說話의 경우-」,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베트남에서도 초혼형이 발견되어⁷⁾ 더욱 분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설화가 어떤 문화 배경에서 형성되어, 흥미 요소가 전승에서 주요하게 역할을 하여 한국에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려 한다. 게다가 설화 속에 남겨진 전승민의 삶은 어떠하며, 설화 속 인물들은 어떠한 신앙의식을 바탕으로 전승 민에게 강력하게 주인공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설화는 오랜 세월을 전승하면서 전승 민들의 삶의 고통을 정화하면서 문학의 기능을 다 해 왔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인 삼공본풀이와 그 본풀이가 구연되던 신성공간인 당(堂)에서 벌어지는 민속을 통해 검토하면 삼공본풀이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공본풀이의 여성주인공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고, 그가 꾸리는 가족형태를 토대로 삶을 영위하는 생활방식, 신앙의식 나아가 제주민이 삼공본풀이를 전승한 전승의식 등을 살펴보려 한다.

II. 유형

1. 초혼형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곳에서 노래하는 중요한 본풀이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는 한국과 중국, 일본 더 나아가 베트남에서 전승되고 있다. 한국은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제주는 삼공본풀이라는 신화로 노래되고 있다. 중국의 초혼형은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이 한 편, 비극적 결말을 맺는 것이 두 편이 발견된다. 비극적 결말을 맺는 중국의 사례는 조왕신의 유래담으로서의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중시하고 내용 소개에 치중한다. 일본의 초혼형은 日本昔話集成⁸⁾의 자료를 참고하면 전설적 성격이 강하고, 베트남의 초혼형은 일야택전(一夜澤傳)에 실린 자료를 참고하면 역시 전설적 성격이 강하다.⁹⁾

7) 하은하(2011),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pp.227-264

8) 關敬吾(1953), 『日本昔話集成』, 東京, 角川書店.

9) 무경(武瓘)(2007),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옮김, 돌베개, pp.35-40. 『영남척괴열전』의 대표편자인 무경(武瓘), 1452-1516)과 교부(喬富, 1446-?)는 각자의 서문에서 일야택전(一夜澤傳)에 대한 자신들이 견해를 밝혀 놓았는데 무경은 일야택전은 “저동자가 착한 일을 하고 선용 공주를 만나 복을 받는 뜻을 밝히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교부도 일야택전은 “착한 일을 행하면 좋은 보답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해서 무경의 이해를 그대로 다루고 있다. (하은하(2011),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1) 한국의 초혼형

제주의 삼공본풀이가 대표적이다. 그 줄거리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친이 딸 3형제를 불러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다. 첫째와 둘째 딸은 아버지 복으로 산다고 하는데 셋째 딸은 자신의 복에 산다고 대답하여 미움을 사 쫓겨난다. 마통이(혹은 숯장이)를 만나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은 점심을 하여 남편의 일터로 간다. 마 파는(혹은 숯 굽는) 터의 돌(혹은 이맛돌)이 금덩이임을 발견한 아내는 남편에게 그걸 팔아 오도록 한다. 이것들이 금으로 판명되어 부자가 된다. 한편 친정은 가난해지고, 부모는 거지가 되어 돌아다닌다. 딸은 부모를 만나기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고 상봉한다.

2) 중국의 초혼형(비극적 결말)

부자인 부친이 딸 일곱 자매에게 혜택 받은 삶은 누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인가라고 묻는다. 언니들은 모두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막내만은 인간의 복, 운의 유무는 자기 자신에 있다고 한다. 부친은 노하여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 모친은 몰래 막내딸에게 말과 은자(銀子)를 준다. 막내딸은 말을 타고 집을 도망쳐 나가고 가난한 남자가 사는 굴에 도착하여 자원하여 아내가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은자(銀子)를 건네주어 쌀을 사러 보낸다. 마을에 오니 큰 개가 짖으며 달려들므로 남자는 은자(銀子)를 던져 개를 쫓아버린다. 그리고 내던진 은자(銀子)를 찾고 있으려니 주변 일대에 은자(銀子)가 널려 있다. 부부는 그것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다.

한편, 막내가 떠난 후, 부친은 영락하여 거지가 되고, 딸의 집인 줄도 모르고 그 문 입구에 선다. 딸은 부친이라는 것을 알고, 주방으로 불러들여, 후히 대접한다. 얼마 없어 부친은 죽이려고 했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 부엌에 들어가서 죽는다. 딸은 부친을 조왕신(寵神)으로 모셨다.¹⁰⁾

3) 중국의 초혼형(희극적 결말)

파이왕(白王)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지만 그 막내딸인 파이와 왕녀는 자신의 복에 따라서 산다고 해서 아버지인 白王의 노여움을 샀다. 왕녀는 한 마리의 물소를 타고 궁전을 나와 정처없이 떠난다. 물소는 장(張)이라는 숯장이와 어머니가 사는 가난한 집 앞에 멈췄다. 왕녀는 이것이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하여 숯장과 혼인한다, 그리고 왕녀는 남편인 숯장을 데리고 아버지인 왕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집을 한 번 찾아와 달라고 한다. 백왕

10) 文山壯族事務委員會(1982), 「獻寵」, 『民間故事集』 1集, 文山壯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自治州文化國文學藝術會聯合會 編, pp.109-110.

(白王)은 점점 더 화가 나서 ‘만약에 너희 집에서 궁전까지의 길을 은(銀)으로 갈아 거기에 금(金)의 다리를 걸친다면 찾아주겠다’고 외쳐댔다. 장(張)은 가난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왕녀는 세 개의 은자(銀子)를 주고 장(張)에게 물건을 사오도록 했다. 그러나 장은 중간에 하나는 빨간 개, 다음은 참새, 또 하나는 말에게 내던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왕녀는 마지막 금을 한 개 주며 다시 물건을 사오라고 하자 장은 이러한 것은 산에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왕녀는 장과 함께 산에서 금괴, 은괴를 가지고 왔다.

왕녀는 그 돈으로 백왕(白王)의 뜻대로 금으로 다리를 완성하니, 아버지인 왕은 어쩔 수 없이 금 다리를 건너 은의 길을 밟고 두 사람의 집을 찾아와 딸에게 너의 복(福)은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을 했다.¹¹⁾

4) 일본의 초혼형

인연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여자가 숲장이와 아내가 되라는 신의 계시가 있어 숲장이를 만나 부부가 된다. 먹을 것이 없자 아내가 소판(小判)¹²⁾을 숲장이에게 주며 쌀을 사오도록 한다. 그러나 도중에 못에 떠 있는 새를 잡으려고 소판(小判)을 던졌지만 잃어버리고 돌아온다. 아내는 그것이 귀중한 금이라며 애석해 한다. 숲장이가 그런 것은 숲 굽는 곳에 많이 있다고 하여 부부는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된다.¹³⁾

5) 베트남의 초혼형

「일야택전」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있다. 전반부의 경우, 응왕의 딸 선용공주는 시집가기 싫어 노는 일에 빠져 있다. 저동자는 죽은 부친이 남긴 유언과 달리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구걸하며 살았다. 거지 저동자를 만난 공주는 부친의 허락도 없이 그와 혼인하여 장사를 하는데 큰 수익을 남겼다. 경위산에서 부광 승려를 만난 후 저동자 부부는 불교에 귀의한다. 부부는 군대를 활용하여 재산을 지키는데, 응왕은 딸의 반란으로 오해하여 공주를 공격하였다. 부부가 살던 성은 한 순간 함몰하여 큰 못이 되고, 사람들은 이를 신성하게 여겨 일야택(一夜澤)이라 하였다. 훗날 양(梁)나라가 침공하였으나 남제(南帝)의 장수 조광복은 일야택에서 기도하자 신이 내려와 용의 발톱을 주니 그것을 투구에 꽂고 적을 무찔렀다.¹⁴⁾

11) 千田九一·村松一彌 編(1969), 「炭焼き張保君」, 『中國現代文學選集』, 小數民族文學集, 東京, 平凡社, pp.199-203의 내용 요약.

12) 小判은 天正(1573-1592) 시대로부터 江戸시대에 걸쳐 만든 타원형의 금화를 말하는데 금이라는 속성 때문에 금을 던지는 대신에 小判을 던지는 것으로 변이된 것이다.

13) 關敬吾(1953), 『日本昔話集成』, 東京, 角川書店.

14) 武璋(2007),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옮김, 돌베개, 35-40쪽.

한중일의 초혼형의 내용을 주요 모티브 별로 나누어 차이를 알 수 있게 표로 제시해 본다. 베트남의 경우는 가난뱅이와 혼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외는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어 제외한다.

표 1 <한·중·일의 초혼형 도표>

중 국	한 국	일 본
부녀 문답	부녀 문답	
딸 축출	딸 축출	계시
숫구이와 결혼	숫구이와 결혼	숫구이와 결혼
투금		투금
금발견, 부자	금발견, 부자	금발견, 부자
부친 영락	부친 영락	
부친 대접	부녀 상봉	
부친 죽음, 조신		

2. 재혼형¹⁵⁾

재혼형은 초혼으로 맺어진 아내가 남편에 의해 쫓겨났는데 가난한 숫장이를 만나 재혼하는 이야기이다. 한·중·일 어느 것이나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가 재혼하는데, 나중에 아내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반성하여 죽어 조신이 되는 사례가 중국에서 보인다. 호남성과 광동성에서 유사한 전승이 있는데¹⁶⁾ 여자의 의도를 모르는 남자의 불운으로 말미암아 비극적 결말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설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본의 경우는 가난뱅이를 만나 부자가 되는 것은 같은데, 담배가 되었다는 등의 전설적 유래로 남고 있어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민담으로 전승한다. 다만 일본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산신문답형(産神問答型)’으로 유형 짓고 있어 흥미를 끈다.

1) 한국의 재혼형

15) 김대숙(1987)은 앞의 논문에서 재혼형을 복진 며느리 1형과 복진 며느리 2형으로 나눴다. 이들의 구분은 이야기의 서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중시한 것이다. 복진 며느리 1형은 관상을 볼 줄 아는 대감이 자신의 아들이 복이 없고, 백정 딸이 복이 있음을 알고 혼인시키는 반상 혼인이고, 복진 며느리 2형은 양반이 산신의 대화를 엿듣고 자신의 아들이 복이 없고, 백정 딸이 복이 있음을 알고 혼인시키는 반상 혼인이다. 양반이 관상을 잘 보는 것과 산신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여자의 출생을 신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따라서 서두 부분의 차이는 전승자들의 전승 의식에 따른 소산일 뿐이다.

16) 松本信廣(1956), 『日本の神話』, 至文堂, p.155, 재인용.

가난한 양반이 출산을 하게 됐다. 부자로 살던 천인도 출산을 하게 됐다. 하루는 양반이 바깥일을 보러 갔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神들의 얘기를 듣는다. 양반은 가난하기에 출산 후 삼신에게 대접을 소홀히 하자 가난하게 살게 장래를 정해 놓고, 천인은 부유하므로 출산 후 삼신을 잘 대접하므로 부자로 살게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반 자식이 천인 자식과 혼인하면 웬만큼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신들의 얘기를 들은 양반은 아이들이 자라자 천인의 딸과 혼인토록 한다.(또는 관상을 잘 보는 양반이 자신의 아들이 복이 없고 백정의 딸이 복이 있음을 알고 들을 혼인시킨다.)

신혼부부는 자식 낳고 살다가 남편은 부친이 죽자 신부의 신분이 천인임을 내세워 쫓아 버린다. 신부는 산골로 들어가다 老母가 있는 초막에서 머무르게 되어 솥장사 하는 그의 아들과 새 삶을 차린다. 하루는 남편이 일하는 솥 굽는 터에 밥을 갖고 갔다가 구덩이에 있는 돌이 금덩이임을 발견한다. 남편에게 그 금덩이를 장에 갖고 가서 팔아 오도록 한다. 팔아온 돈으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큰 부자가 된다. 전남편 생각이 난 그녀는 거지 잔치를 열고 마지막 날 찾아온 남편을 만나 그를 따라가 행복하게 산다.

한국의 재혼형은 설화의 시작에 따라 둘로 나뉜다.

하나는 위의 사례처럼 가난뱅이 양반과 천인인 부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가 출생했으니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례를 삼신에게 행하는데, 잘 대접하고 못했는가에 따라 삼신이 아이에게 대접받은 만큼의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반과 천인으로 신분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분이 중요하기보다 얼마나 잘 대접하였느냐의 문제가 중심이다. 인간의 운명은 신이 정해준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이처럼 신의 계시에 따라 운명이 전해진다는 설화는 뒤에서 설명할 일본의 <산신문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설화 중 또 하나의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감집과 백정집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대감은 아들의 관상을 보니 가난하게 살 운명이고, 백정의 딸은 잘 살 운세였다. 대감은 아이들이 성장하자 백정을 찾아가 혼인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가 죽자 남편은 아내의 신분이 낮음을 들어 집에서 쫓아낸다.

쫓겨난 아내가 가난뱅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여 잘 살게 되는 것이나 아내가 집을 나선 이후부터 전남편이 가난하게 됨은 앞의 사례와 같다.

하나는 부자와 빈자라는 부의 문제가 갈등의 출발이라 한다면 다른 하나는 대감과 백정으로 나타나는 신분의 문제이다. 게다가 하나는 신이 등장하여 잘 살고 못살게 되는 운명을 그들의 대화에서 듣게 되지만 다른 하나는 관

상을 볼 줄 아는 대감에 의해 운명의 정보가 드러나고 있다.

관상을 보는 대감이 아들의 미래를 알고 있고 백정은 모르고 있기에 대감은 백정을 찾아가 혼인을 제안한다. 백정도 신분 높은 대감과 사돈을 맺어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혼인을 약속하게 된다. 이는 신분이 사회에서 주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관상을 보는 것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의 일이 아니라 관상학을 배워 얻을 수 있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별된다. 따라서 관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공부를 하지 못한 백정은 모르고, 공부를 한 대감은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중국의 재혼형

먼저 湖南省의 苗族이 전승하는 재혼형(寵神故事)을 약술한다.

큰 부호인 남편이 아이들의 탄생일 축하 시에 가난한 아내의 친절로부터 축의가 적다고 하여 화를 내어 아내에게 말과 銀子를 주고 쫓아낸다. 아내는 말을 타고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 산중의 오막살이에 도착하여 거기에 사는 짜리베기 남자와 부부가 된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가졌던 銀子를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쌀을 사오게 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개에게 물리게 되자 남자는 銀子를 내던지고 돌아온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짜리베기의 집 주변에 금은이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은 금은을 팔아 금새 유복하게 된다. 전남편은 얼마 후 영락하여 거지가 되고 큰 저택에서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행렬에 줄 서 있는데 운이 나쁘게 언제나 베푼 것을 얻어먹지 못한다. 그 집의 안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하여 주방으로 청하고 보니, 전남편이므로 남기고 온 자식들의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전남편 몰래 銀子를 넣은 떡 20개를 준다. 전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떡 18개를 밥과 교환하여 먹고 집에 돌아와 나머지 떡을 구워 먹으려 하였다. 그랬더니 속에서 銀子가 나오므로 쫓아낸 아내의 정에 감사했다. 수일 후 전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전처의 저택을 방문한다. 처는 떡에 넣은 銀子 20개에 대해서 묻는다. 전남편은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부엌 속에 들어가 불타 죽는다. 후에 寵王菩薩로 모셔진다.¹⁷⁾

또 하나의 異傳에 의하면

五子大敗라고 하는 부자와 五子大奔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의 딸이 결혼한다. 딸 집에 재물이 없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 남편이 아내를 말에 태워, 銀子 오백량을 주어 쫓아내 버린다. 그런데 말을 타 정처 없이 간 여자는 짜리베기 집에 이르러 자원하여 그 집 아들의 부인이 된다.

17) 凌純聲 芮逸夫(1947), 앞의 책, pp.259-265.

그리고 전조의 이야기와 같이 개에게 銀子를 던지고 돌아와 이것이 보물이 라면 집 근처에 많이 있다고 말하고 부자가 된다. 한편 전 남편은 그 후 망해 버리고 거지가 되어 전처가 살고 있는 곳에 온다. 그리고 자기가 복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 불 속에 몸을 던져 불 타 죽고 寵王菩薩이 된다.¹⁸⁾

3) 일본의 재혼형

어느 대장장이 아내가 씌뽀이가 헤프므로 남편은 아내를 내쫓는다. 아내는 산 속을 헤메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찾아가니 주인은 가난뱅이였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여자는 남편에게 금을 주고 쌀을 사오라고 한다. 남편은 숯이라면 팔아 쌀을 살 수 있는데 이런 돌로는 쌀을 살 수 없으며 이런 것은 숯 굽는 가마터에 많이 있다고 한다. 아내는 억지로 남편을 쌀 사러 보낸 후 숯 굽는 터에 가 보니 주위에 황금이 쌓여 있어 집으로 운반해 온다. 부부는 황금을 팔아 큰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부자가 된다. 한편 전남편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부자가 된 전처의 집에 들른다. 여자는 전남편임을 알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집 하인으로 살도록 해 주고 그는 숯굽는 長者 집에서 일생을 보냈다. ¹⁹⁾

전설로 보이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사월 初午에 보리밥을 먹었다고 하여 남편이 밥그릇을 내던진다. 아내는 쫓겨나서 다른 집에 시집을 간다. 전남편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 찾아온다. 융숭하게 대접하고 자기가 예전 아내임을 밝힌다. 전남편 거지는 깜짝 놀라서 죽는다. 변소 뒤에 사체를 묻으니 나무가 자라났다. 그 잎을 술 위에 놓아 두니 좋은 냄새가 난다. 이것이 담배의 시초다.²⁰⁾

4) 일본의 産神 問答型

친구 두 사람이 寄木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한 남자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는 가난하고 여자는 부자로 살 運이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아들의 부친은 들을 혼인시킨다. 부자로 살다가 남편은 아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다. 참새가 숯장이를 찾아가라며 안내해 준다. 여자는 숯장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가 먹을 것이 없자 남편에게 小判을 주어 쌀을 사오도록 한다. 도중에 밭에 있는 새를 쫓으려고 小判을 던졌는데 잃어버린다. 아내가 그것은 귀중한 돈이라고 알려 주자 숯 굽는 터에 그런 돌이 많다고 하여 부부는 그것들을 모아 부자가 된다. 한편

18) 凌純聲·芮逸夫(1947), 위의 책, pp.257-265.

19) 關敬吾(1981), 『日本昔話大成』, 第 3卷, 角川書店, pp.163-164.

20) 關敬吾(1981), 위의 책, pp.165.

전남편은 아내를 쫓아낸 후 몰락하여 장사꾼이 되어 부자인 아내 집에 물건 팔러 간다. 아내는 전남편임을 알고 후히 대접한다. 자신이 쫓아낸 전처임을 알고 혀를 깨물어 죽는다. 사체를 묻은 곳에서 담배가 나왔다.²¹⁾

이상의 유형 분석에서 보아 초혼형이나 재혼형이나 모두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함을 직감하게 되고 또 차이점도 있음을 느끼게 된다.

중국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라오스의 예도 있다.

부호가 아내와 이혼한다. 아내는 반지 하나만 낀 채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서 가난한 짜리베기 남자의 집에 들어가 자원하여 아내가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반지를 주고 팔아오라 하는데 남편은 이런 물건은 짜리베는 산에 많이 있다 하므로 남편을 재촉하여 산에 간다. 부부는 자루 하나 가득 보석을 손에 넣어 큰 부자가 된다.

한편 전남편은 낭비벽 때문에 무일푼이 된다. 전처의 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부부가 없는 틈을 타 도둑질하러 들어간다. 숲 속까지 와서 한숨 쉬어 보니 보석은 그냥 돌로 변해 있었다.²²⁾

이러한 재혼형은 한국, 중국(먀오족, 파이족, 야오족, 광동성, 안휘성), 버마(파라운족) 베트남, 티베트 등의 주변 민족 사이에서 보이는 것으로 동아시아에 널리 전승하는 설화이다.²³⁾ 한국의 재혼형과 비교하면 서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결말부에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혼형의 구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중·일 재혼형 도표>

중 국	한 국	일 본	일 본 (산신문답형)
	산신 문답	산신 문답	산신 문답
	반상 혼인	남녀 혼인	부자·빈자 혼인
아내 축출	아내 축출	아내 축출	아내 축출
가난뱅이와 재혼	숫장이와 재혼	숫장이와 재혼	여자 재혼
투금			
금발견, 부자	금발견, 부자	금발견, 부자	부자
전 남편 영락		전 남편 죽음	전 남편 몰락
거지 잔치	거지 잔치		

21) 稲田浩二·小澤俊夫 編, 1983, 『日本昔話通觀』 26, 東京, 同朋舎, pp.29-30.

22) Xay Kaignavongsa and Hugh Fincher, The Millionaire and His Wife-Legends of the Lao, Bangkok, 不明, pp. 21-22. 伊藤清司(1991), 『昔話傳説の系譜』(第一書房), p. 173 재인용.

23) 飯島吉晴(1986), 『寵神と廁神』, 人文書院, 東京, p. 62.

서두에서 축출의 계기를 보면 부호가 아이의 탄생 축하 때 아내의 친절로부터 축의가 적다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아내는 빈민의 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부호는 처음부터 부유했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져서 양반의 아들이 현재는 부자이지만 빌어먹을 운명으로, 상민의 딸은 현재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살 운명으로 정해 놓았다는 일본의 産神 문답 화소와 비교해 보면 부자와 빈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러한 어렸을 적 상황이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재혼형도 처음에는 한국의 재혼형의 서두처럼 운명담을 설명하는 설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다음은 결말 부분이다. 한국의 초혼형에서는 쫓겨난 딸이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후 거지 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재혼형에서는 거지 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전남편을 만나고 있다. 이것은 축출의 상대가 부친이 아닌 남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초혼형에서의 父女相逢이 재혼형에서는 夫婦相逢으로 변이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에서 보면 이와는 다르다. 중국의 재혼형의 화소는 다음과 같이 8개로 이루어졌다.

- ① 아내의 친절로부터 축의가 적다고 남편이 말과 銀子를 주고 아내를 쫓아낸다. <축출>
- ② 싸리베는 남자와 만나 그의 아내가 된다. <가난뱅이와 재혼>
- ③ 아내는 남편에게 銀子를 주어 쌀을 사오게 하나 개에게 銀子를 던지고 돌아온다. <투금>
- ④ 그것이 동기가 되어 싸리베기의 집 주위에 금, 은이 있음을 알고 부자가 된다. <금 발견, 부자>
- ⑤ 전남편은 영락해진다. <전남편 영락>
- ⑥ 쫓겨난 아내는 거지잔치를 열고 전남편은 얻어먹으러 온다.<거지 잔치>
- ⑦ 아내는 전남편임을 알고 후히 대접한다. <전남편 대접>
- ⑧ 전남편은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부엌 속에 들어가 불 타 죽고 寵王菩薩로 모셔진다. <전남편 죽어 寵神이 됨>

이 중 <⑤ 전남편 영락, ⑥ 거지 잔치, ⑦ 전남편 대접, ⑧ 전남편 죽어 寵神이 됨>이라는 화소의 결합을 전남편 삼화라 한다면 이 중 2개의 화소인 ⑦ 전남편 대접, ⑧ 전남편 죽어 寵神이 됨이라는 화소는 기존의 ⑤, ⑥ 화소에 덧붙여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확대시키면서 寵神의 유래담으로 정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재혼형에서 부부 상봉의 계기는 거지 잔치이며 거

지 잔치를 여는 이유는 여자가 영락한 전남편을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재혼형의 ⑤전남편 영락, ⑥거지 잔치 화소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재혼형은 <①축출, ②재혼, ③투금, ④부자, ⑤전남편 영락, ⑥거지 잔치>라는 한국의 재혼형과 동일하다. 여기에 <⑦전남편 대접, ⑧남편 죽어 寵神이 됨>이라는 화소가 덧붙여진 것이 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문화 전승이 이동하였다면 <① 축출에서 ⑥ 거지 잔치>까지의 이야기가 한국으로 건너온 셈이 된다.

Ⅲ. 형성배경

삼공본풀이와 같은 내용의 것이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무속신화로 불려지고 있고, 한국본토에서는 민담으로 전승되고, 삼국유사에서는 서동설화가 전설적 속성을 지니고 기록되었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삼국사기에는 온달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된 줄거리는 쫓겨난 여자가 가난뱅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설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전승되고 있어 동아시아의 오래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태초의 모습대로 보증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의문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의 소유자인 신을 등장시켜 설명하게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서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태초의 모습을 현재에 재연함으로써 의심을 해결하였다. 서사는 구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의 연극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사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것이 낫이며, 신의 직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매년 일정 기간에 그 의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앙민이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 전승하게 된다.

신화는 오래 세월 동안 전승민들이 신성하다고 믿고 전승한 것이다. 그래서 신화를 읽는 독자는 어떤 점이 신성 요소인가에 주의하여야 한다. 삼공본풀이는 전승민이 전상신이라 인식하고 있듯이 전상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전승민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속에서 신화적 속성인 은유와 상징 요소들이 언제부터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신성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삼공본풀이 속 인물은 서사 공간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주인공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 공간과 사건은 바로 전승민인 제주인

의 삶의 터전인 제주요,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제주 사람이 전승주체이며, 제주 사람의 삶을 통해 삼공본풀이의 신성성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랜 세월을 통해 삶의 방식은 변화를 거쳐왔다. 고조선의 건국에서 삼국의 건국까지 삶의 흐름을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변모로 읽어내거나,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변모로 읽어내는 것처럼 삼공본풀이도 어떤 시대적 배경을 거치며 신화 속에 문화요소가 반영되고 신성성을 내포하면서 전승되었는지 살펴본다.

첫째는 핵 가족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삼공본풀이의 등장인물은 가난한 거지부부와 딸, 후에 딸과 혼인한 마통이와 그의 모친이다. 주인공은 딸과 마통이이며, 서사의 흐름의 대부분은 딸의 마통이 찾기와 마통이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금을 발견하게 되는 딸의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거지부부와 마통이의 모친은 이러한 자식의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딸의 집안이든, 마통이의 집안이든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집안이다.

인류의 혼인 방식에는 내혼제(內婚制)와 외혼제(外婚制)로 나뉜다. 어떤 특수 집단의 사람이 그 집단의 성원과 결혼하는 것이 내혼제요, 그 집단의 성원과는 결혼을 금하는 것이 외혼제다.²⁴⁾ 또 혼인은 그 혼처로 보아 모처혼(matrilocal marriage) 부처혼(patrilocal marriage) 일시적 처처혼 등으로 나뉜다. 모처혼(母處婚)이란 처처혼(妻處婚), 초서혼(招婿婚)이라 불리는 것으로 남자가 처가에 가서 일생을 사는 혼인법이요, 부처혼(夫處婚)이란 처가 남편 집에 들어와 일생을 사는 혼인법으로 가입혼(嫁入婚)이라고도 한다. 또한 모처혼은 모계제 사회의 본격적 혼인 방식이요, 부처혼은 부계제 사회의 본격적 혼인 방식이다.²⁵⁾ 한편 일시적 모처혼이란 서입혼(婿入婚)이라 하는데 남자가 혼인하면 어느 기간 동안 처가에서 살다가 남자의 집으로 처를 데려다 사는 것으로 모처혼과 부처혼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며 모계사회의 혼법에서 부계사회의 혼법으로 변용하는 과정의 산물이라 한다.²⁶⁾ 모처혼은 모계사회 하에서 나타나는 혼인 방식이므로 이러한 체제 하에서 가정의 권한은 부(父)보다 모(母)에게 있게 마련이고 부처혼은 부계 사회 하에서 나타나는 혼인 방식이므로 이 경우는 모보다 부에게 가정의 모든 권한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24) E. Westermarck 著·青山道夫 譯(1933), 『婚姻と離婚』, 改造社, pp.23-30. 이 글에 따르면,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1. 촌락 내외로 한정하는 것 2. 씨족 내외로 한정하는 것 3. 종족 계급권 내외로 한정하는 것 4. 사회적 계급 내외로 한정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25) 松村武雄(1958), 『日本神話の研究』, vol.4., 培風館, pp.799-804.

26) 松村武雄(1958), 위의 책, p.804.

다.

제주의 삼공본풀이는 쫓겨난 딸이 결혼하여 남편 집에서 살고 있기에 외혼제이며, 혼인 조건으로는 자유혼이고, 거주 형태로는 부처(夫處) 거주임을 알 수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딸은 점심을 준비하여 남편 일터에 갔다가 금을 발견하고, 금을 남편에게 주어 쌀을 사오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 곧 어머니는 가게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 된다. 가정경제 운영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은 제주 사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서도 적용된다. 그 결과 아내는 안사람, 남편은 바깥양반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생활의 흔적이라 할 만하다.

둘째는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사회가 확립된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딸은 축출되면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금을 갖고 나서고 있고, 남편의 일터에 널려 있는 돌덩이가 금임을 아는 인물로 금이 가난뱅이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귀한 것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금이 화폐 경제의 수단이 되는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가난한 신분에서 부자로 경제적 상승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신분제 계급사회가 확립된 시기를 반영하는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딸이 축출되면서 소를 타고 가는 것은 소를 가축화한 삶의 방식이며, 가정 경제를 여성이 갖고 있다는 것은 농경사회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 지증왕 대에 우경법이 시행되었다²⁷⁾ 했으니 상당히 오랜 문화 요소의 흔적임을 알게 한다.

셋째는 제정분리 과정에서 야금술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쫓겨난 셋째딸은 가난한 마통이를 만나 혼인하고 남편의 일터에 점심을 준비하고 갔다가 일터 주변의 돌이 금덩이임을 발견한다. 이는 한국본토의 설화에서 가난한 솟장이와 혼인하고 그의 일터에서 금덩이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는 주인공의 일터에 금이 있었고, 주인공은 금을 주조하는 일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마통이든 솟장이이든 가난뱅이 인물이 고대에는 금을 주조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내포하고 있고, 금으로 인해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가 되고 있음은 원래 인물이 금으로 인해 높은 신분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은 주조 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주조 기술은 은(殷)나라 때 발전했으며, 그 흔적은 당시의 청동기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²⁸⁾ 생활에서 금

27) 『三國史記』 卷 第 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條. 三年春正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親祀神宮 三月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28) 동양사학회 편(1983), 『동양사』, 서울, 지식산업사, p.21.

을 사용한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청동제 화폐가 화북 지역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음으로²⁹⁾ 유추 가능하다. 청동기술은 철이 출현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철제 농구와 쟁기가 생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제철업은 노예 노동을 주축으로 유지되면서³⁰⁾ 이들의 지도자는 야장으로 엄청난 부와 지위를 누리게 된다. 투르크족에서는 야장이 특권계급이며, 몽골계 여러 민족의 서사시에서는 영웅을 의미한다.³¹⁾ 야장이 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이란, 몽골 등에서 보이고, 한국의 경우는 신라의 탈해왕 설화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³²⁾ 함달파왕(含達婆王)의 왕자 탈해는 숫돌과 숫부스러기를 묻어두는 교묘한 꾀계(詭計)를 꾸밈으로써 호공의 집을 차지한다. ‘무엇으로 조상이 살던 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관리의 물음에 탈해는 ‘우리 집은 원래 대장장이였습니다’ 고 하여 자신의 집안이 대장장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대장장이가 대를 이어 세습하고 있었으므로 원래 대장장이의 자손인 탈해도 역시 대장장이인 셈이다. 고대의 제정일치 시대에는 왕이 사제의 역할을 하였기에 탈해는 정치권력의 수장이면서 의례를 행하는 왕인 셈이다. 게다가 국가의례가 있을 시는 모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의 삼공본풀이와 같은 서사무가를 노래한 셈이 된다.³³⁾

중국 고대국가의 왕들은 조상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이었고, 무당이나 점쟁이의 대표자였다는 점은 당시의 왕의 통치행위가 조상신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³⁴⁾

이것으로 보아 불을 다루는 야장과 의례를 집행하는 무당은 비슷한 외경의 대상이며, 치병과 예언의 능력도 겸비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세습한다고 하니, 제주의 사제자인 심방도 고대에는 탈해와 같이 높은 지위의 소유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사회를 반영하였다는 설화 속 주인공이 야장을 유추할 수 있는 숫장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삼국유사의 무왕 설화나 제주도의 삼공본풀이에서는 야장이 아닌 마통이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인다. 마통이의 등장에 대해 양주동은 설화 주인공의 어릴 적 이름을 지칭하는 막내라는 의미의 ‘뭇

29) 松村武雄(1958), 앞의 책, p.31.

30) 동양사학회 편(1992), 『동양사』, 지식산업사, p.30.

31) 田村克己, 「鍛冶屋と鐵の文化」, 森 浩一 編, 『鐵』, 社會思想社(1982), p. 224 재인용.

32) 『삼국유사』 권 1, 탈해왕조.

33) 엘리아데의 『샤마니즘』에 따르면, 북시베리아의 야구트족의 습속에서도 정치 권력자가 사제의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무당과 야장은 한 계보이고 무당과 야장의 아내는 존경을 받았다. 그러면서 야장 신의 아들들은 지상의 여자와 결혼하여 야장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 가족의 자손이라야 야장이 될 수 있다. 야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지니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한다.(Mircea. Eliade(1974), Shamanism, Bollingen Series, Princeton, pp.470-471.)

34) 동양사학회 편(1992), 『동양사』, 지식산업사, pp.19-20.

둥’은 ‘막둥’ 또는 ‘마통’과 음이 통하며, 그 속명인 말통대왕(末通大王)의 말통도 음이 통한다는 점은 같은데, 무왕의 이름은 이 말자(末子) 또는 말통(末通)의 음이 서동과 연결되면서 서동전설이 생겨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⁵⁾ 양주동과 같이 민속을 통한 해석은 일본의 류전국남(柳田國男)도 유사하게 내리고 있다.³⁶⁾ 일본의 설화 주인공은 가난뱅이로 모굴(芋掘り)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통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솥장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설화의 주인공인 야장의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고, 주물사라고 하는 말이 오이타현(大分縣)의 산촌에서는 방언으로 이모시(イモシ)라고 한다는 걸 들고, 모굴(芋掘り)의 ‘모(芋: 이모イモ)는 주물사로 보아 좋다³⁷⁾’고 하여 솥장이나 마통이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였다. 삼국시대에 무당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김대문이 말한 「차차웅(次次雄)은 방언(국어)으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까닭으로 무당을 두려워하고...」³⁸⁾라고 한 대목이다. 차차웅은 이사금, 거서간과 더불어 왕을 뜻하는 말이므로 고대의 왕은 샤먼이었다는 셈이다. 따라서 야장은 샤먼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왕 = 샤먼 = 야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러한 것은 고대 국가가 제정일치 시대였다는 점도 이해에 도움을 준다. 중국의 설화에서도 솥장이가 쫓겨난 여자의 남편이며 그의 직업이다.

그래서 솥장이를 본래 직업이라고 보고, 금속공예와 탄요가업(炭燒家業)과를 연결시켰다. 불과 목탄의 역사를 보아도 솥불은 중세에서는 보통 가정의 연료가 아닌 점, <원래는 금속공예 용도에 솥을 굽고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탄 방법은 최초 대장장이에 의해 발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³⁹⁾ 방언을 통해 유추한 류전국남(柳田國男)의 견해는 타견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야장 관련 설화가 한쪽은 말자(末子), 모대(牟大)가 전이되어 서동전설이 생겼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주물사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이나 일본의 설화에서 등장하는 가난뱅이 인물의 신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솥장이이든 마통이이든 그들의 삶은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 계층이다. 이는 가난뱅이임을 반증하는 말이다. 실제 삼공본풀이에서 마통이는 아내가 해준 쌀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조상도 못 먹어본 것이라며 반가워한다. 오래 전 왕이었던 신분과는 다르다. 바꿔 말하면 왕처럼 고

35) 梁柱東(1983), 『古歌研究』, 一潮閣, pp.447-450.

36) 柳田國男(1963), 『海南小記』, 『定本柳田國男集』1卷, 筑摩書房, p.335.

37) 柳田國男(1963), 앞의 책.

38) 『三國遺事』卷1, “金大問云 次次雄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39) 柳田國男(1962), 『豆の葉と太陽』, 『定本柳田國男集』2卷, 筑摩書房, p. 359., 『火の昔』, 柳田國男(1962), 『定本柳田國男集』21卷, 筑摩書房, p. 257.

귀한 신분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야장일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가난한 신분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문장아기로 상징되는 지배계층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반면, 마통이로 대표되는 피지배계층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대체작물로 마를 이용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중일의 설화에서 가난뱅이들이 쌀을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의 단초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 삼공본풀이는 고대로부터 많은 변화 과정 속에서 왕의 지위에서 가난뱅이로 전락하는 단계를 유추할 수 있는 문화변모 요소가 숯장이나 마통이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정이 분리되면서 야장은 야장대로 야금업에 종사하고, 샤만은 샤만대로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통치자인 왕은 왕대로 정치를 맡게 되었으며, 그 역할이 직업으로 기능하면서 가난뱅이의 상징적 존재인 숯장과 마통이로 남게 되었다 할 수 있다.

IV. 구조와 의미

서사문학은 내적인 법칙에 의해 변형하며 전승한다. 하지만 내적인 틀 속에서 변형하므로 삼공본풀이는 삼공본풀이만이 갖는 기본 구조의 틀 속에서 다양한 설화를 재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뉠 수 있는 근거이다. 삼공본풀이인 초혼형과 한국본토에서 전승되는 민담인 재혼형은 구조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면 설화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성과가 달성되면 동아시아의 초혼형과 재혼형의 의미를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초혼형과 재혼형의 사례를 검토하여 초혼형과 재혼형의 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베트남의 초혼형 자료는 변모 양상이 심하여 제외하고, 한중일로 좁혀 논의한다. 화소의 구성으로 보면, 초혼형이든 재혼형이든 구조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얼핏 떠오르는 것은 구조는 동일한데, 세부 사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초혼형 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재혼형은 초혼형을 살핀 후에 진행한다.

표 3 <초혼형과 재혼형의 화소표>

지역	진행 순서	초혼형 화소	행불	재혼형 화소	
한국	①	부녀 복 확인 문답	행복	반상 혼인	
	②	딸 축출, 숯구이와 결혼	불행	아내 축출, 숯구이와 재혼	
	③	금발견, 부자	행복	금 발견, 부자	
	④	부친 영락	불행	전 남편 몰락	
	⑤	부녀 상봉	행복	결인 잔치, 부부 상봉	
중국	비극적 결말	①	부녀 복 확인 문답	행복	부자, 빈자 혼인
		②	딸 축출, 숯구이와 결혼	불행	아내 축출, 가난뱅이와 결혼
		③	금발견, 부자	행복	금 발견, 부자
		④	부친 죽음, 조신	불행	전 남편 영락, 조신이 됨
		⑤	부녀 상봉	행복	
	희극적 결말	①	부녀 복 확인 문답	행복	
		②	딸 축출, 숯구이와 결혼	불행	
		③	금발견, 부자	행복	
		④	부친 영락	불행	
		⑤	부녀 상봉	행복	
일본	①	신의 계시	행복	남녀 혼인	
	②	출가, 숯구이와 결혼	불행	아내 축출, 숯구이와 결혼	
	③	금발견, 부자	행복	금 발견, 부자	
	④	전남편 죽음	불행	전 남편 죽음	

표1에서 한국의 초혼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버지와 딸이 행복하게 살다가 복확인 문답을 한다. 부친이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고, 딸은 자기 복으로 산다고 한다. 화가 난 부친은 딸을 내쫓게 되고 딸은 가난뱅이를 만나 부부가 된다. 딸은 남편의 일터에서金を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아버지는 딸을 쫓아낸 후 거지가 된다. 딸은 거지잔치를 열고 아버지와 상봉한다.

중국의 초혼형은 비극적 결말과 희극적 결말로 나뉜다. 희극적 결말은 한국의 초혼형과 거의 같지만 비극적 결말은 마무리에서 차이가 난다. 비극적 결말의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버지가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는지 묻자 딸은 자신의 복 때문이라 한다. 아버지는 딸을 쫓아내고, 딸은 어머니가 주는 금을 받고 집을 나와 가난뱅이를 만나 혼인을 한다. 남편에게 금을 주고 물건을 사오도록 하자 그런 것은 자신의 일터에 많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된다. 거지잔치를 열어 아버지와 상봉하는데, 아버지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딸임을 알고, 부끄러워 부엌 속에 들어가 불타 조왕신이 된다.

일본의 초혼형은 서두부터 차이가 있다. 부녀의 복 확인 문답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미혼인 딸이 가난뱅이와 혼인하라는 신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딸이 가난뱅이를 찾아가 그의 아내가 되고, 소판(小判)이라는 귀중품을 주고 쌀을 사오도록 했으나 남편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새를 잡으려고 던져 잃어버린다. 아내가 그것은 귀중한 것이라 하자 일터에 많이 있다며 그

결로 부자가 된다.

이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초혼형으로 비극적 결말을 맺는 것은 서두부터 마무리까지 ①부녀 복 확인 문답 ②딸 축출, 숯장이와 결혼 ③금발견, 부자 ④부친 영락 ⑤부녀상봉으로 묶을 수 있는 화소가 공통하여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지만, 일본의 것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중국의 비극적 결말을 맺는 설화는 조왕신의 유래담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전상신의 유래담이라는 신화와 그 성격이 같다. 반면에 중국의 희극적 결말을 맺는 설화는 한국본토의 민담과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더구나 제주의 삼공본풀이가 무속신화로 구연되지만 한국본토의 민담 자료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이것으로 제주의 삼공본풀이는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적 특성을 결합하여 형성되어 제주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일본의 초혼형도 서두에서만 신의 계시라는 모티브가 차이를 보일 뿐이다. 금덩이의 귀중함을 모르는 남편에게 아내가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자 아내가 그런 것은 자신의 일터에 많이 있다고 하여 小判이라는 금을 팔아 부자가 되는 기본 구조는 같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용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초혼형의 구조는 조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중국의 비극적 결말을 짓는 설화를 제외하면 모두가 행복 - 불행 - 행복 - 불행 - 행복이라는 단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민담적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부모의 딸로 살다가 집을 떠나 혼인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아내로서의 삶에서 자신의 삶이 누구의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복 때문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성의 삶은 혼인 전에는 부모를 중심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 혼인 후에는 부부 중심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관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설화 공간에서 가든장아기는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부모에게도 과감하게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딸의 덕이라고 주장하고, 혼인한 후에도 남편에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들을 뿐 가정의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설화를 전승하는 전승민의 삶들이 그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승하는 여성들의 삶이 가든장아기처럼 가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초혼형이 한국의 삼공본풀이는 전상신의 유래담이고, 중국의 사례는 조신의 유래담이었다. 이것으로 초혼형은 신화로 전승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전상신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관장하고, 중국의 조신은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관장하는 운명관장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다음은 표1의 재혼형 화소를 분석해 본다.

한국의 재혼형은 양반과 천인 또는 부자와 빈자의 자녀가 혼인했지만 신분적 갈등을 빚어 천인이거나 빈자의 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쫓겨난다. 가난뱅이를 만나 재혼하고 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아내를 쫓아낸 남편은 가난해져 구걸하러 돌아다니다가 부자가 된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경우 발단은 대감집 아들이 가난할 운명이고, 백정의 딸은 부자로 살 운명이어서 대감은 자존심을 꺾고 천인집안의 딸과 혼인시킨다. 하지만 부모가 죽은 후, 대감의 아들은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아내를 쫓아내고, 아내는 가난뱅이를 만나 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거지잔치를 열자 구걸하던 전남편이 찾아와 부부상봉한다.

부부상봉 자체로는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다. 아내는 전남편을 위해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녀의 문제를 고려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전남편을 잊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거지잔치를 열고, 전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부부중심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어떤지 이상하다. 전남편을 돕는 것은 설화가 전승되는 사회의 도덕률에 따른 결과인 듯하다. 거지잔치 화소는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희극적 결말을 맺는 설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초혼형이 비극적 결말을 맺으며 조신 유래담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듯이 재혼형도 비극적 결말을 맺으며 조신 유래담으로 마무리한다. 서두에서는 신분문제가 갈등이 아니라 빈부의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다. 부자집 아들이 가난한 집 딸과 혼인하였으나 가난한 집의 대우가 맘에 들지 않아 아내를 쫓아낸다. 아내는 가난뱅이를 만나 부부가 되고, 귀한 은자(銀子)를 주고 쌀을 사오도록 했으나 개에 물리는 일이 생기자 은자를 버리고 도망친다. 아내가 은자가 귀한 것임을 알려주자 자신의 일터에 많이 있다며 그것으로 부자가 된다. 거지잔치를 열고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엌에서 불타 죽어 조왕보살로 모셔진다.

아내를 쫓아내는 이유가 빈부의 문제여서 신분제도가 완성되기 이전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은자로 쌀을 사오도록 하고 있어 물물교환 시대가 아닌 시장경제 시대의 요소임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특징은 부엌에서 죽어 조왕보살로 모셔진다는 점이다. 조왕신이라는 점으로 보아 고대적 요소인데, 보살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도 개입되었음을 알게 된다.

일본의 재혼형은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줄거리에 따르면, 어느 대장장이의 아내가 씹씹이가 해피서 쫓겨나자 가난뱅이 숯장이를 만나 재혼을 한다. 가난뱅이에게 금을 주어 쌀을 사오라 하자 자신의 숯 굽는 터에 많다고 하여 부부는 그걸 팔아 부자가 되었다. 거지가 된 전남편은 전처가 거지잔치를 열자 찾아가 전처의 도움으로 그 집 하인으로 지낸다. 또는 전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죽기도 한다.

시작부터가 어느 대장장이 아내가 등장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초혼형에서 논의할 때 숯장이는 야장의 기능을 하는 고대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가난뱅이로 나타나는 숯장이는 제정일치 시대에는 집단의 통치자였으니 일본의 대장장은 이러한 고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높은 지위의 대장장이가 시대가 흘러 가난뱅이로 전락하니 그러한 시대상의 변모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부자와 빈자의 자녀가 서로 혼인하는 재혼형 외에 산신(産神)의 지시로 혼인하는 예가 있다. 줄거리에 따르면, 친구 두 사람이 어떤 나무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신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는 가난하고 여자는 부자로 살 運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아들의 부친은 둘을 혼인시킨다. 훗날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다. 참새가 숯장이를 찾아가라며 안내해 준다. 여자는 숯장이와 결혼하여 남편에게 小判⁴⁰⁾을 주어 쌀을 사오도록 한다. 도중에 밭에 있는 새를 쫓으려고 小判을 던졌는데 잃어버린다. 아내가 그것은 귀중한 돈이라고 알려 주자 숯 굽는 터에 그런 돌이 많다고 하여 부부는 그것들을 모아 부자가 된다. 한편 전남편은 아내를 쫓아낸 후 몰락하여 장사꾼이 되어 부자인 아내 집에 물건을 팔러 간다. 아내는 전남편임을 알고 후히 대접한다. 전남편은 자신이 쫓아낸 전처임을 알고 혀를 깨물어 죽는다. 사체를 묻은 곳에서 담배가 나왔다.

발단에서 부자와 빈자의 혼인에서 시작되는 갈등이 아닌 신의 계시가 특징이다. 그래서 산신문답형⁴¹⁾으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는 ‘복진머느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⁴²⁾ 이것은 신의 계시로 혼인하지만 딸의 축출이 아니라 아내의 축출이어서 재혼형에 해당하며,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만 찾을 수 있어 문화의 수수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조왕신의 유래담으로 결말짓

40) 小判은 天正(1573-1592) 시대로부터 江戸시대에 걸쳐 만든 타원형의 금화를 말하는데 금이라는 속성 때문에 금을 던지는 대신에 小判을 던지는 것으로 변이된 것이다.

41) 關敬吾(1953), 『日本昔話集成』, 東京, 角川書店.

42) 金大珮(1987), 「女人 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는 담배의 유래담으로 바뀌어 신화가 아닌 전설적 속성을 띄고 있다.

V. 신앙적 의미

제주의 무속신화인 삼공본풀이는 「‘내복에 산다’ 계 설화」의 초혼형에 속한다. 중심 내용은 누구 복에 사는가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셋째딸인 가문장 아기는 자신의 복에 산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비위를 거슬러 쫓겨나고, 마를 캐는 가난뱅이 총각과 결혼하여 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재혼형은 혼인한 여성이 남편에게서 쫓겨나자 가난뱅이를 만나 재혼하게 되는데, 역시 남편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나 여성이 부자가 되는 계기는 금덩이를 발견하는 데 있다.

빈부를 좌우하는 금덩이 발견에 주도적 역할은 초혼형인 삼공본풀이에서는 딸이고, 재혼형에서는 재혼한 아내이다. 설화의 서사 구조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인 여성에 의해 남성의 삶이 좌우되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삼공본풀이에서는 셋째딸을 낳고 난 다음부터 거지부부의 수입이 좋아지니 셋째딸은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셋째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민간에서는 혼인할 때, 셋째딸은 얼굴도 안보고 데려간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셋째딸의 신앙적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셋째딸의 기능이 민담이나 전설에서처럼 웃음을 유발하거나, 증거물이 지니는 역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삼공본풀이의 셋째딸의 능력은 집안을 부자로 만드는 금발견의 원천이 되고 있고, 한국본토 민담 사례에서는 숯장이의 부인이 셋째딸은 아니지만 어느 집안의 딸이다. 비록 신분은 낮지만 복이 있는 아내이기에 남편은 아내 덕분에 가난을 면하고 신분상승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에서 셋째딸이라면 훗날 그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삼공본풀이에서 셋째딸을 낳고부터 가난한 살림은 퍼지기 시작했고, 셋째딸이 집에서 쫓겨나 인연이 끊어지자 다시 가난해졌다는 점은 셋째딸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가난뱅이 마통이를 만나 혼인하자마자 그의 일터에서 금덩이를 발견하는 것은 셋째딸의 능력이 가난뱅이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한 가정이 가난했다가 집, 밭을 사서 부자가 되면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후부터 달라졌다고 한다. 또한 반대로 부유하던 집이 망하게 되면 역시 며느리를 맞이하고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여 한 가정의 빈부를 며느리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느 것이나 한 가정의 운명은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신앙의식의 반영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여성의 타고난 복으로 집안의 빈부가 결정된다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흥미본위의 민담에서 생겼다가보다 여성이 지니는 풍요의 원리가 반영된 신화적 사고의 결과라 판단한다.

그러면 초혼형과 재혼형의 선후는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 설화의 발생 측면에서 보면 초혼형이 먼저 구연되고, 설화가 성장하면서 재혼형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렸던 딸이 혼인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으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초혼형은 부부에서 출발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혼인시킴으로써 마무리하는 과정이 내용의 중심 흐름인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딸을 내쫓는 것이 혼인을 위한 과정으로 추정하면, 이것 역시 딸의 혼인에도 아버지의 결정권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재혼형에서는 겉으로는 남녀의 문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 원초적 의미와는 거리가 생긴다. 또한 혼인을 한 후, 남편에게서 쫓겨났을 때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있어 일단 혼인하면 딸은 친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집의 사람이라는 관념이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딸을 중시하는 관념은 어떠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일까? 그것은 도작문화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뱀씨를 뿌리고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가해지면 씨앗은 싹을 틔운다. 그 싹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체득한 고대인들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하늘은 비를 내려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땅은 그 씨앗을 품어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그것이 한 가정에서는 여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성이 자식을 잉태하는 것을 땅이 씨앗을 품는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신성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생산력을 상징하는 여성의 힘은 가정에서는 딸, 남편에게는 아내를 통해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삼공본풀이는 농경생활을 하면서 여성이 가계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생활하는 시기의 산물임을 알게 된다.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사회에서 발생한 문학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외부세계의 문제가 아닌 가

정 내의 문제인 점이 흥미를 끈다. 삼공본풀이에서 ‘누구 복에 살고 있는가’ 라는 부친의 물음에 셋째딸은 당당하게 자신의 여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 부친이 부당하다며 쫓아내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과감하게 집을 나선다.⁴³⁾ 그리고는 가난뱅이 마통이 3형제를 만나 스스로 자신의 남편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셋째 마통이를 선택하여 혼인하는 적극성을 보이는데 이것 역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려는 점에서 가정 내의 문제인 셈이다. 혼인 후에 금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금을 팔아오라는 것 역시 자신은 가정 내에 있고, 남편을 통해 외부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가 된 후, 부모를 만나려는 셋째딸은 남편에게 제안하여 거지잔치를 여는데, 이것 역시 자신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정 내에서 가정 밖의 일을 담당하는 남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달성하고 있다. 거지잔치를 열고 부모가 찾아오자 냉정한 태도로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부모를 찾아 자신이 쫓겨난 셋째딸임을 밝히는 데서도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재혼형에서도 다르지 않다. 자신을 쫓아냈던 남편이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고 있는 아내는 전남편을 위한 거지잔치를 열고 자 할 때도 현재 남편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초혼형이든 재혼형이든 셋째딸이나 쫓겨난 아내를 제외한 인물들은 서사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을 중심한 사건 전개가 주제로 수렴됨을 알게 된다.

삼공본풀이에서 셋째딸의 등장은 전승민들의 3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1’은 남성을 의미하는 양의 수이고, ‘2’는 여성을 의미하는 음의 수이어서 ‘3’은 이 둘을 합한 종합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남녀의 혼인은 자식을 두며, 이는 3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셋째딸은 이러한 종합되고,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제주의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셋째딸을 전상신이라 하는 것은 3의 의미가 지니는 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신적 존재로까지 확산된 것이라 해석된다.⁴⁴⁾ 전상은 인간의 운명 또는 팔자를 의미하는 제주민이 옛말이다. 심방의 말을 빌면, 전상은 글하는 것, 활쏘는 것, 관공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모든 것을

43) 초혼형인 서동설화에서 선화공주는 민간에서 불리지는 서동요의 내용을 들은 부친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부친의 명을 따르고 있지만, 또 다른 초혼형인 온달설화에서 평강공주는 부친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는 말을 바꾸려 하느냐며 본인 스스로 온달을 찾아가 혼인하고 있다. 이들은 전승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사회 상황에 따라 전승민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4) 셋째딸이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작품에서 셋째딸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 보면 동서양 모두가 3의 수를 신성하게 여겼음을 알게 한다.

말한다. 이것은 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민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좋은 의미의 전상도 있고, 나쁜 의미의 전상도 있다. 부자로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그게 좋은 의미의 전상이 된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전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간 삶의 양상을 좌우하며, 또는 그와 같은 운명적 상황이 마련되도록 어떤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신이라 하여 오늘날의 운명신적 성격을 가진 신으로 본다.⁴⁵⁾ 장주근은 제주의 큰굿을 세밀히 관찰한 후, 제상(祭床)에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올리고 본풀이를 노래하여 신들을 모시고 대접하는데 특별히 부자로 만들어주는 삼공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이 가난뱅이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제의에서 삼공신이 모셔지고 그 행적이 노래 부르니 과거에는 삼공본풀이가 어떤 신격에 대한 신화였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신의 종교적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어떤 신격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더 오래 전승되면서 신성성이 사라지고 민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⁴⁶⁾ 오늘날 연구자들이 부신⁴⁷⁾으로 보거나, 운명관장신⁴⁸⁾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도 처음 성격이 후대에 변모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자연현상, 사회현상에 따라 삶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부자와 가난뱅이가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는 신의 뜻에 따라 정해진 운명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 신화는 전승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 성공과 실패 등을 과거에 정해진 것이라는 운명으로 해석하여 전생신⁴⁹⁾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인류는 채집경제생활을 하다가 수렵을 거쳐 농경생활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지모신 신앙이 강화되고, 자연스레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정착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가게 운영에서 아내를 안사람이라 지칭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바깥양반이라는 지칭에 걸맞게 바깥일을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의 모든 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45) 이수자(1989), 앞의 논문, pp. 18-19.

46) 장주근(1961), 『韓國의 神話』, 成文閣, p. 241.

47) 장주근(1961), 앞의 책, pp. 241-242.

48)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pp. 18-19. 현승환(1993),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49)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 192.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부부의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는 소속집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닥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딸로 살던 거지부부 가정에서는 셋째 딸이 태어나면서 살림이 퍼져 부유하게 살지만, 그녀가 쫓겨나서부터는 부모가 맹인이 되고 한 순간에 풍비박산이 되어 거지가 되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마통이를 만나 꾸린 새 가정은 남편의 일터에서 금덩이를 발견하면서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신분 변화를 일으킨다. 어느 쪽이든 여성으로 인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는 여성의 생생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식의 표현이다.

「‘내 복에 산다’ 계 설화」로 전승되는 초혼형이 여성의 생생력을 바탕으로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제주의 삼공본풀이는 전상신의 유래담이고, 중국의 초혼형 중 비극적 결말을 맺는 설화는 조신의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제주의 전상신은 현세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러한 일이 행해지게 전생에서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는 관점에서 전생신⁵⁰⁾이라 한다. 이는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전생의 결과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운명론적 세계관을 수용한 것이 삼공본풀이인 셈이다. 또는 가난뱅이와 혼인하여 부자가 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부신⁵¹⁾으로 보기도 한다. 운명적으로 부자가 되게 정해졌다는 것이며, 현세에서의 최고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데 있는 생각의 표현인 듯하다.

중국의 초혼형으로 비극적 결말을 맺는 것은 조신 유래담이다. 자신의 복에 잘 산다고 대답했다가 쫓겨난 딸이 가난뱅이와 혼인하여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삼공본풀이와 이야기의 구조가 동일한데 결말에서 거지잔치에 참석한 부친이 딸을 쫓아내었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부끄러워하며 부엌에서 죽어 조신이 되는 결말을 맺고 있다. 조신은 가정의 안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신이다. 한국에서는 조신에 대한 본풀이가 제주의 문전신본풀이로 전승되는데,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가 조신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는 부엌에서 죽은 아버지가 조신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있지만 가정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기능은 같다. 중국의 조신은 가족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가족 전체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한다. 그러한 중국의 조신에게 하는 제의⁵²⁾의 모습을 들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민간에서는 조왕신이 가족들의 선악을 기록해 두었다가 매월 30일

50) 현용준(1980), 위의 책, p. 192.

51) 장주근(1961), 앞의 책, pp. 241-242.

52) 장정룡(1988), 『한중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p.107, p.226.

에 한테 모아 천제께 아뢰며, 매년 설달 24일(또는 23일)에는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집안의 선악을 보고하고 다시 정초에는 ‘집안의 평안과 복록’을 관장하기 위해 내려온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중국의 가정에서는 이를 위해 조신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중국의 조신은 옥황상제에게 집안에서 벌어진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받아 내려와 상벌을 내리는 것이어서 조신이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조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집안의 과거지사를 나쁘게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집안을 관리하는 주부는 조신신상을 만들고 그 입을 엮으로 틀어막아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제주의 전상신이나 중국의 조신이나 행복과 불행을 관장하는 신격이지만, 제주의 것은 개인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중국의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강함을 알겠다.

Ⅶ. 부친의 안맹과 개안

삼공본풀이는 자신의 복에 의해 살고 있다는 주인공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이 정한 복에 의해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 복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과거에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민들은 이것을 운명이라 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다는 사고의 표현으로 전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 복은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행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다.⁵³⁾ 따라서 삼공본풀이를 신앙하는 신앙민은 행복과 불행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운명론 속에서 살고 있다. 의례에서는 신앙민이 이러한 운명론을 인정할 수 있게 구상화하여 보여준다. 굿하는 공간은 삼공신이 살던 태초의 장소이며, 여기에서 벌어진 태초의 사건을 현재 공간에서 재연하면서 한 인간의 복을 신이 정해주었다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셈이다.

셋째 딸이 출생 후, 가정이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이라는 복이라면, 부모가 안맹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복이다. 어느 것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안맹하는 불행은 자신의 여성성으로 잘 산다는 딸의 주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딸을 자신의 복으로 삼자는 주장에 반대하여 집을 나가서 너의 복임을 증명하라고 쫓아내었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안맹하게 된다. 만약 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면 불행이 닥치지 않았을 것이

53) 행복은 좋은 스록, 불행은 나쁜 스록으로 풀고 있다.(현용준(1980), 위의 책, p.377)

다. 그러니 현재의 불행은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의미이다. 집을 나온 셋째 딸의 삶은 집에서 주장한 자신의 복이 옳고, 아버지의 복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가문장아기의 전생 운명 곧 부자로 살게 되었다는 결정이 미리 정해졌다는 관념은 본풀이 줄거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례에서도 나타난다. <삼공맞이>는 성극 의례에서 행해지는 곳으로 전상신의 신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모의연극이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전상신이라 부르고 있으니 이 이름을 따 <전상놀이>라 한다. 전상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행해지는 직업이나 특이한 재능 등 운명 지어진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전상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지 못하므로 현세의 삶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공의 인문환경과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에 의해 변화하고 결정되므로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삼공신은 전생을 차지하면서 운명을 관장하며 기원자의 기구 사항을 들어주는 직능을 가진 신격임을 알 수 있다.

삼공본풀이에서는 여성의 여성성으로 복을 받는다는 줄거리에서 부모의 안맹과 개안 모티브가 삽입되어 있다. 안맹이든 개안이든 이것 역시 전생에 그리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라는 점은 줄거리에서 눈치 챌 수 있다. 어느 것이든 현재의 모습은 신이 정한 대로인 전상이다.

안맹은 불행의 복이고 반면에 개안하는 것은 행복의 복이다. 본풀이의 흐름은 안맹이든 개안이든 전생에 그리되도록 운명 지워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누구 복에 잘 사는가를 물을 때만 하여도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으니, 딸이 자신의 여성성으로 잘 살고 있다 하므로 아버지는 누구의 결정이 맞는 것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딸을 축출하면서 현재의 행복의 이유를 알고자 하였다. 하지만 딸의 안위를 확인하려다 부모는 액방(額枋, 윗중방)에 부딪쳐서 안맹하게 된다.

‘누구 덕에 사는가’라는 부녀의 복 확인 문답은 셋째 딸과 아버지와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인식의 갈등이다. 가족이라면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든, 딸로 인해 행복하든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그 기능을 분명히 알려주어야만 한다. 딸은 축출당하는 자체는 불행이지만,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에 행복이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맹은 극복할 수도 없고 평생 동반해야 할 불행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러한 불행을 극복하고 싶어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당사자는 절대자의 힘에 기대어 이를 극복하려 한다. 무속에서 벌어지는 안맹과 개안은 불교와 유교에서도 공동의 관심사로 나타난다. 다만 무속이 주술력에 의한 개안이라면, 불교설화에서는 불력에 의한 개안으로, 유교를 기반한 설화는 효에 의한 개안으로 달라질 뿐이다.

먼저, 무속의 사례는 제주의 토산일뤼당신 본풀이에서 주술에 의한 안맹과 개안을 보여준다.

토산리 바라못도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죄목으로 무쇠 석갑에 담겨 동해 바다에 띄워졌는데, 용왕국에 도착하여 셋째 딸과 부부가 되었다. 부부는 용왕국에서 쫓겨나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콩을 불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용왕국 따님아기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술(符術)로 콩깍지를 시어머니의 눈에 들게 하였다. 눈이 아파하는 시어머니 눈을 부채로 부쳐드리니 콩깍지가 치맛자락으로 떨어졌다.(하략) 54)

며느리인 용왕국 따님아기가 부채로 눈을 치유하는 것은 용왕국 따님아기의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呪力)에 의한 개안이다. 이렇게 보면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 부모의 안맹과 개안은 우연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문장아기의 신성성을 보여주기 위한 주력(呪力)에 의한 안맹이요, 개안이다. 이러한 신화의 내용을 삼공맞이⁵⁵⁾라는 의례에서는 주술력으로 개안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신앙민의 신앙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본에 따라서는 생사를 모르던 딸 감은장아기를 만나 그 딸이 세숫물로 부모의 눈을 씻겨드리고 세 번 어루만지자 개안하는 것으로 되어⁵⁶⁾ 주술력에 의한 개안임을 알게 된다.

또한 불교가 유입된 후에는 개안 모티브가 불력(佛力)의 신비성에 의한 결과로 불교계 설화로 승배되며 삼국유사에 정착되기도 한다. 향가 도천수대비가의 배경설화가 그것이다.

경덕왕 때에 한지리(漢岐里)에 사는 여자 희명의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54)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p.561-568.

55) 현용준(1980), 위의 책, p.376. (입무) <상잔에 술을 부어 봉사에게 주며 사설> 이 술 혼 잔 들읍서. 천년주우다. 만년주우다. 설운 어머니야 아바님야, 내 가문장아기우다. 나 술 혼잔 받읍서. (봉사夫) <술잔을 들어 먹으려다가> 이! 어느 거 가문장아기! <놀라며 상잔을 덜렁하게 떨어뜨려놓으며 감았던 눈을 번쩍 뜬다. 상잔의 전패(顛沛)를 보아 길흉을 판단하고> <창> 설운 어머니야 아바님 다 좃았고나. 좃아 천하거부로 잘 살았고나.<집안식구들이 모두 젓상에 절하고>

56) 진성기(1959),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pp.41-45.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쪽 벽에 그린 천수관음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멀었던 눈이 드디어 떠졌다.⁵⁷⁾

이처럼 불력에 의한 개안은 불교 경전에도 나타나고 있다.⁵⁸⁾ 또한 불사 연기설화에서도 개안모티브가 눈에 띈다. 전라남도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연기문에 의하면 불력의 신비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충청도 대흥현에 원량(元良)이라고 부르는 맹인이 일찍이 처를 잃고 홍장(洪莊)이라는 어여쁜 딸 하나를 유일한 의지로 생활하여 갔었다. 원량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흥법사 중 성공(性空)을 만나서 눈도 열리고 무슨 일인지 축수한 대로 되는 법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와 그의 유일한 가족이요 애녀이던 홍장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홍장은 나이 꽃다운 열여섯 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소랑포(蘇浪浦)의 안두(岸頭)에서 쉬고 있을 적에 벽해에 나타나는 중국 선인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사서 배에 싣고 가서 황제에게 드렸다. 때는 진(晉) 혜제(惠帝) 영강(永康) 정해(丁亥) 오월, 제(帝)는 황후가 방금 죽고 고적한 회포로 눈물이 곤의를 적실 적에 자주 새 황후가 있다는 길몽을 얻었다. 실로 이 선인들은 혜제가 보낸 사자들이었다. 홍장은 새로 황후가 되어 본국을 잊지 못하여 세 짝 배에 관음을 싣고 동국으로 건너보내게 하여 그 배가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옥과현 성덕사의 기지(基址)다. 원량은 공덕에 의하여 눈이 열려 복을 누리다가 95세까지 살았다.⁵⁹⁾

성공 스님이 무엇이든지 축수하는 대로 되는 법을 듣고 자신의 딸 홍장을 팔기로 하고 있다.

효에 의한 개안은 심청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심학규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시주하여 정성을 다하면 개안할 수 있다는 스님의 제안에 선뜻 시주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고민에 빠진다. 인간과 절대자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안 심청은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 300석의 시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였고, 심학규는 그 은덕으로 개안하였다. 부친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300

57) 『三國遺事』 卷3,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條.

58) 인권환(1967), 「적성의전 근원설화 연구」, 『인문논집』 제8집,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59) 盛德山 玉果縣 觀音寺誌 : <余少時遊歷諸山幸到觀音寺…忠清道大興縣有一盲人其姓元其名良早喪配…無所依賴惟有一少女名洪莊…其盲父適有故出上邑路逢一僧乃弘法寺…名性空者也忽見盲者…盲者言以我矣焉求若所欲豈不難哉化士再拜而起曰吾受勸軸之日夢…必逢盲人即爲汝之大檀越也…盲人…有一少女以此與之即賣而以爲法堂經營…是時女年二八…心力疲困乃憇所蘇浪浦岸…真是后也…使者曰吾晉國人也…皇后崩自是上常惻…一夜夢有神人白…皇后生於東國…化士遂與計偕入上國朝謁…后曰…豈能忘乎本國…五十三佛五百盛衆與十六羅漢點畢使舟人載三石船送本國…向東國漂流海中已及暮矣一朝忽隨風飄泊…玉果處女…引物而來前盛德…負觀音輕如鴻毛行到…安置仍建大伽藍扁其額曰盛德山觀音寺良有以也…盲人元良從前別女之裳淚盲眼忽明…福以從壽九十五.

석을 마련해야 하니 그 방안으로 자신을 팔아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스토리의 밑바탕에 유교의 효 개념이 깔려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간단히 종합하면 삼공본풀이에 삽입되어 있는 개안 삽화는 불교와 충과 효를 내세우는 유교 이념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주술력이 강조된 설화 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불력의 신비성을 중시한 결과 불력에 의한 개안 화소로 변이 되어 문헌에 정착되고, 또 효를 강조하는 유교 관념이 정착되면서 본토의 개안 설화가 형성되어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개안 삽화는 신의 주술력에 의한 개안 화소가 선행하여 있었고, 불교의 유입 후에는 불력에 의한 개안으로 변이 되고, 유교의 효사상의 보급되면서는 효행개안 화소로 변이되어 설화 또는 소설에 남게 된 것이다.

VII. 결론

이 설화의 특성은 설화가 말하려는 주제인 여자의 복, 바로 운명에 있다. <내 복에 산다>계 설화의 한 부류인 제주의 <삼공본풀이>는 전상신(前生神)의 내력담이다. 삼공신을 신앙하는 전승민의 삶에는 좋은 복도 있고, 나쁜 복도 있다. 어느 것이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닥치게 마련인데, 삼공본풀이는 인간 스스로는 현재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의 뜻에 의해 정해진 대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혼형으로 나타나는 혼인을 한 이후의 여성의 운명 역시 초혼형과 같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상이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은 이를 통제하는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인공의 탄생 이전부터 주인공의 모든 운명을 관장하는 신은 지역에 따라 전상신과 조신으로 그 성격이 강화되어 제주의 삼공본풀이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고, 중국의 조신유래담은 가정의 구성원들의 운명에 대한 모든 복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명은 초자연적인 것이요, 형이상학적인 것이며 철학적인 것이어서 민담의 오락성을 주는 것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설성, 신화성을 띤다. 따라서 이것을 특수한 인간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하면 전설이 되고, 초자연적 존재의 설명으로 기울어지면 신화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삼공본풀이는 본래부터 신화·전설·민담으로 이야기될 소지를 지니고 있는 설화 유형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삼공본풀이와 같은

설화가 전승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 삶에 대해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신성성을 지닌 철학적인 사고의 결과인 셈이다.

운명은 개인에게 닥치는 일에 대한 해명을 위한 수단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 신의 뜻이고, 그것은 이미 현재의 모습대로 나타나기에는 이미 과거에 정해졌다가 오늘의 모든 일에 초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삼공본풀이는 심청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여성성으로 인해 남자가 잘 살게 되었다는 근원설화가 초혼형 혹은 재혼형으로 나뉘어 형성되어 전승되는 것이 시작이었다. 딸의 복으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은 초혼형이요, 아내의 복으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은 재혼형이다. 어느 것이나 여성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은 공통이다. 초혼형에서 복의 증명은 딸이 혼인을 하면서 금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재혼형에서 복의 증명은 재혼한 아내가 금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졌다. 어느 것이나 여성의 복을 깨닫지 못한 남성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복 확인 과정이다.

안맹과 개안 모티브는 복 확인 과정에서 가난과 부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제기하여 복의 유무로 그 결과 안맹과 개안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안맹은 여성 곧 딸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남성 곧 아버지의 잘못을 확인시키는 구체화 과정이다. 초혼 형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이 안맹이었고, 재혼 형에서는 아내를 쫓아낸 전남편의 잘못이 안맹으로 나타난다. 그 잘못을 깨달으면 개안으로 나타나는데, 주도적 역할은 딸과 아내인 여성이 중심이다.

이것으로 보아 안맹과 개안 모티브를 지닌 개안 설화는 여성의 복 확인과는 다른 설화로 구전되고 있었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복 확인 하는 초혼형 설화와 결합하여 제주의 삼공본풀이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맹과 개안 모티브를 지닌 개안설화는 불력에 의한 개안이면 불교설화로, 효에 의한 개안이면 심청전 계열로, 주술력에 의한 개안이면 무속 신화로 전승하게 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 『三國遺事』, 일연
- 金大琫, 1987, 「女人 發福 說話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석배, 1982,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집, 문학과 언어학회.
- 金承璨, 「敘事巫歌의 形成」, 『民俗學散藁』, 第一文化社, 1980.
- 동양사학회 편, 1992, 『동양사』, 14쇄, 지식산업사.
- 成耆說, 1981, 「韓日 民譚의 比較 研究-溫達 武王系說話와 炭燒小五朗說話의 경우-」,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 梁柱東, 1983, 『古歌研究』, 一潮閣.
- 李秀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李承均, 1981, 「福 많은 女子系 民譚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필영(역)M.A 차플리카, 『시베리아의 샤마니즘』, 서울, 探求堂, 1984.
- 인권환, 1967, 「적성의전 근원설화 연구」, 『인문논집』 제8집,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 趙萬鎬, 1985, 「濟州島 무당굿놀이의 民俗學的 接近-본풀이와 맞이·놀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진성기, 1959,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 崔雲植, 1973, 「쫓겨난 女人 發福 說話考」,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 하은하, 2011,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 현승환, 1993,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關敬吾, 1953, 『日本昔話集成』, 東京, 角川書店.
- 關敬吾, 1981, 『日本昔話大成』 第3卷, 東京, 角川書店.
- 稻田浩二·小澤俊夫 編, 1983, 『日本昔話通觀』 1-28, 東京, 同朋舎.
- 柳田國男, 1963, 「海南小記」, 『定本柳田國男集』 1卷, 筑摩書房.
- 武瑤, 박희병 옮김, 2007,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 飯島吉晴, 1986, 『竈神と厠神』, 東京, 人文書院.
- 松本信廣, 1956, 『日本の神話』, 至文堂.

- 松村武雄, 1958, 『日本神話の研究』, vol.4., 培風館.
- 伊藤清司, 1991, 『昔話 傳説の系譜』, 第一書房.
- 田村克己, 1982, 「鍛冶屋と鐵の文化」, 森 浩一 編, 『鐵』, 社會思想社.
- 千田九一・村松一彌 編, 1969, 「炭焼き張保君」, 『中國現代文學選集』, 少數民族文學集, 東京, 平凡社.
- 青山道夫 譯・Westermarck 著, 1933, 『婚姻と離婚』, 改造社.
- 凌純聲・芮逸夫, 1947, 「竈神故事甲」, 『湘西苗族調查報告』, 國立中央研究員歷史語言研究所.
- 文山壯族事務委員會, 1982, 「獻竈」, 『民間故事集』 1集, 文山壯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自治州文化國文學藝術會聯合會 編.
- Mircea. Eliade, 1974, Shamanism, Bollingen Series, Princeton.